

촛불 대신 예배: 신촌에서 라이프치히의 '월요 기적'을 다시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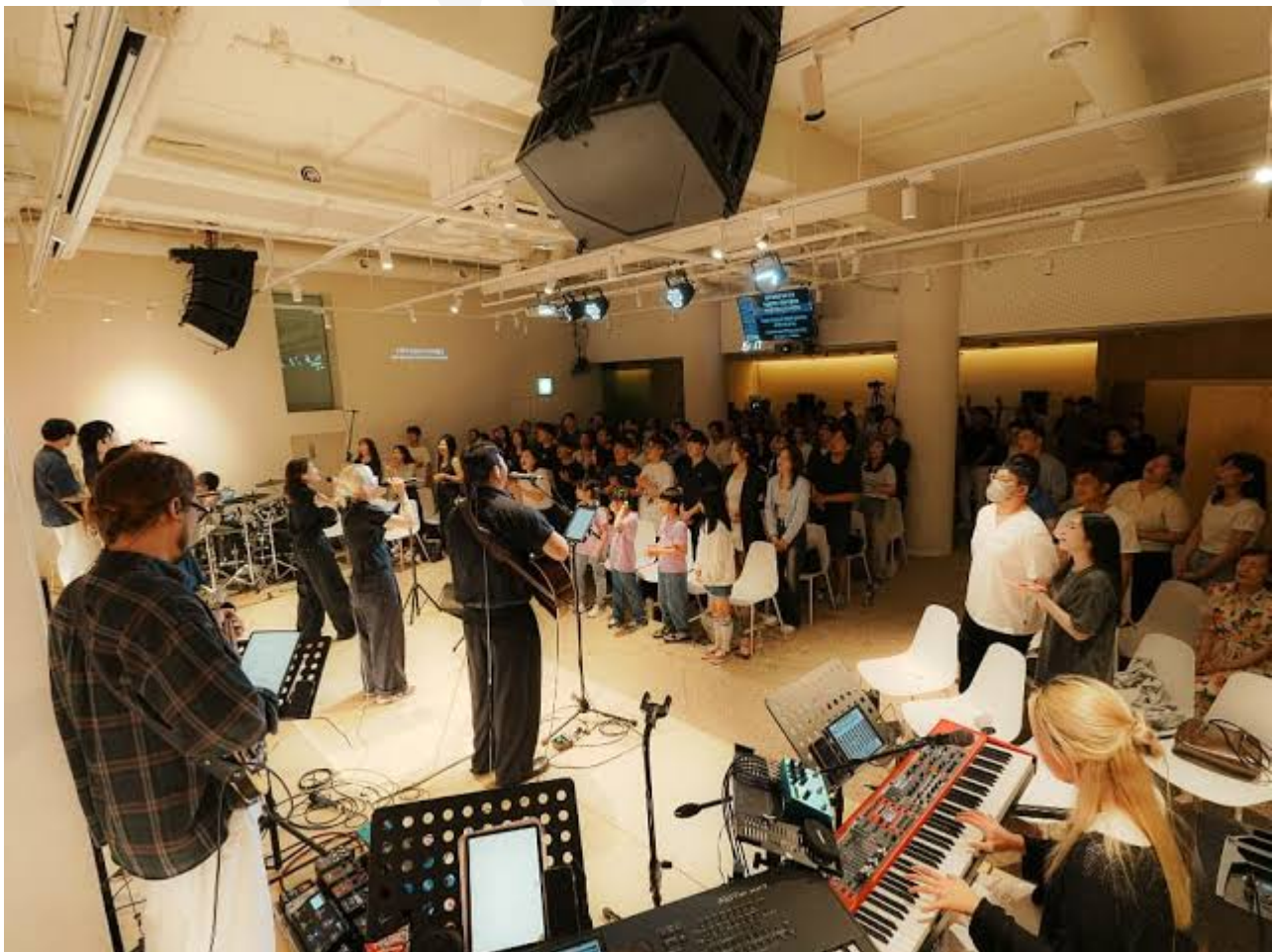
David Joung · 2026년 10월 4일

AI 요약

9월 29일 서울 나의교회에서 열린 제4회 SAVE NK 북한 기도 모임 서울의 변화한 대학가 신촌의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네온사인이 깜빡이며 켜지고,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교회로 향합니다. 9월 29일, 그들은 나의교회(MYC)에 모여 제4회 SAVE NK 북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비무장지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일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SAVE NK는 예배, 중보기도, 영적 전쟁을 통해 북한의 영적 돌파를 추구하는 초교파 기도 운동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각 교단의 신자들이 모여 북한 복음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운동의 리더들은 종종 한 문구를 되새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일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이프치히, 월요일 오후 5시 이 운동은 독일 통일 전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9월 29일 서울 나의교회에서 열린 제4회 SAVE NK 북한 기도 모임

서울의 변화한 대학가 신촌의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네온사인이 깜빡이며 켜지고,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교회로 향합니다. 9월 29일, 그들은 나의교회(MYC)에 모여 제4회 SAVE NK 북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비무장지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일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SAVE NK는 예배, 중보기도, 영적 전쟁을 통해 북한의 영적 돌파를 추구하는 초교파 기도 운동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각 교단의 신자들이 모여 북한 복음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운동의 리더들은 종종 한 문구를 되새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일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이프치히, 월요일 오후 5시

이 운동은 독일 통일 전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1982년, 프로프스트하이다 지역의 한 교회 청년 그룹은 귄터 요한센 집사와 함께 니콜라이 교회(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정기적인 평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해 9월 20일 첫 기도회가 열렸고,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는 압력을 가했지만,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 후, 1989년 가을, 그 작은 모임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 기도회가 끝난 후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장한 보안군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시위대는 "폭력 반대!"를 외치며 평화롭게 행진했고, 진압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군중은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 주에는 약 32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한 달 후인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니콜라이 교회의 현 담임목사가 말했듯이, 평화 기도가 없었다면 월요 시위도 없었을 것입니다.



젊은 예배자들로 가득 찬 기도실

SAVE NK의 특징은 젊은이들입니다. 각 모임은 나익교회 예배팀이 인도하는 열정적인 예배로 시작됩니다. 북한 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들과 전문가들이 실제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현장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북한의 최신 소식을 전달합니다. 목표는 막연한 기도가 아닌,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팀이 인도를 시작하면, 성전은 뜨거운 기도로 빠르게 채워집니다.

모임에서 모인 모든 헌금은 현장의 사역 파트너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기도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다음 모임: 10월 27일

제5회 SAVE NK 기도 모임은 10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1982년 라이프치히에서 젊은이들이 시작한 작은 기도 모임이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최측은 신촌에서 타오른 불꽃이 한반도에 새로운 장을 여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서는 LinkAsia (linkasia.net) 에서 생성되었습니다.